

용은 물론 정보문화의 확산과 국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情報의 편재로 인한 소외계층을 발생케 한다거나 컴퓨터 문맹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비능률을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적 마인드확산을 위해 각별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부디 진지한 토론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훌륭한 대안이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로 인해 분주다망하신 중에도 대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 격려하여 주시는 뜻 明 체신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적극 후원하여 주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삼성데이터시스템주식회사,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 10. 25



# 치 사

吳 明 (체신부장관)

**존경** 하는 한국전산원 김성진 원장님,  
정보문화센터 이용태 회장님,  
한국정보과학회 김종상 회장님과 한국  
통신학회 심수보 회장님,  
정보통신진흥협회 김지주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가전산화정책과 정보문화확산을 주제로 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각계 각층이 합동으로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준비하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류사회는 정보혁명의

물결속에서 기존사회구조의 질적인 전환과 함께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정보화사회의 조기 구축과 정착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각층이 합심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이제는 전화시설이 1,000만 회선을 넘어서서 1가구 1전화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기본통신수요의 충족을 가져 왔으며, 첨단서비스의 개발 보급과 전국 전화자동화 완성 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통신기술진흥과 통신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세계

열번째로 첨단기술 복합체인 전자교환기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광케이블, 고집적 반도체 개발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첨단 전자통신기술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분야의 성공사례의 모범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정보통신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 장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 일반의 정보마인드 확산과 정보이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보문화확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2000년대초까지 컴퓨터 단말기 1,000만대 이상을 보급하여 컴퓨터 통신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합리화와 효율극대화를 꾀함은 물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면에서는 작은 정부, 국민에 대한 서비스면에서는 큰 정부라는 통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산망을 조기완성하여 국가전반의 능률화와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이룩하며 국내 시장조성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거점기술개발에도 주력하여 5만회선 이상의 대용량 전자교환기를 개발하고, 4M DRAM과 16M DRAM 등 고집적반도체 개발을 지원하며, 슈퍼미니급 컴퓨터의 국산화 추진과 함께 ISDN 기술개발을 위해 단계별 장단기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책전산사업의 추진에 의한 시장형성과 함께 DB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DB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부가가치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신부는 작년에 회선사용제도를 완화하여 그룹 VAN을 허용한 바 있으며, 사회적 수요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이의 단계적 개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서비스의 다양화추세에 따라 여러 통신장비가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통신설비간에 연동성을 확보하고, 생산이용의 최적화를 위해 통신장비의 표준화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사회의 조기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세미나에서 올바른 국가전산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의 제시와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세미나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